



대학 전경

부산과기대, '글로벌 사회 맞춤형'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혁신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는 흥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한 전 인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5년의 전통과 함께 지난 1998년 부산정보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후 2012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부산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평가와 경쟁에서 앞선 '명품' 대학

부산과기대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과 III 유형(후진학 선도형 사업)에 동시 선정되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LINC+) 사업에 선정되는 등 교육부가 주관하는 3개의 대형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병행제 사업, 대학 일자리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기술 사관 육성 사업 등 전국 최대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정보공시를 기준으로 부산지역 1위를 차지했다. 부산과기대는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수요자 중심의 첨단 교육환경과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전액 투자해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성과 확산

부산과기대는 '2020 전문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사회 맞춤형학과 중점형) 연차 및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협약반 지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LG전자, SK네트웍스, 한성모터스, 서원유통



강기성 총장

등 310여 개 기업과 사업 운영 및 취업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전체 취업률 90.1%(채용 약정 인원 대비, 비협약 업체 포함)를 달성해 대학, 기업,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실질적인 수요자 맞춤형 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를 올렸다.

부산과기대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산업체, 대학,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허브 대학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공동선발(Support), 공동설계(Learning), 공동운영(Teaching), 취업 연계(Get a Job)라는 4대 핵심 전략을 세웠다.

또 국가직무표준(NCS)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25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여기에는 ▲ 산업체 요구 직무의 사회 맞춤형 엔비피플러스(NCS Based PBL+S-OJT) 교육과정 도입 ▲ 산·학·관 협력체계 및 고용 거버넌스 구축 ▲ 일자리/직무 중심의 사회 맞춤형 채용연계체제 운영 ▲ 고용정책과 연계한 취업 지원체제 구축 ▲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진로·직무 매칭 시스템 운영 및 1대1 직무컨설팅 ▲ 현장 미러(Mirror)형 교육환경 구축 ▲ CoP (Community of Practice) 구축 등이 포함된다. 부산과기대는 이를 통해 '사회 맞춤형 인력양성 및 약정기업 취업 연계 100%'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기대는 청년실업과 구인 및 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관계자 등 수요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들의 진로·직무 매칭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선발, 교육 운영, 취업 지원 전 과정에서 산업체 인사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해 사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참여 학생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해 중도 탈락자 방지와 취업 매칭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OJT(Structured-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내 재교육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외식조리과는 1학기에 파크하얏트 OJ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하계 방학 기간 5~6주 동안 집중 수업



부산과기대 학생들

을 진행했다. 2학기에 워커히 OJT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등 유연 학기제를 운용해 협약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대학 인프라 혁신

부산과기대는 링크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자격증 취득지원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 수준에 부합한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기대는 대학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3년에 걸쳐 전 학과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기업 현장 미러형'으로 구축했다. 기업 현장의 환경을 강의실로 옮겨 놓은 '세상에 하나뿐인 강의실'은 협약산업체와 연계한 PBL, 현장실습, OJT 등 학생들에게 현장 밀착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성 총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며 "우리 대학이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부산 지역 직업교육 거점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